

| | |
|---------|---|
| 지역분류 | 미주 / 미국 |
| 보도일/기관명 | 2017. 1. 20.(금) / FierceWireless |
| 제 목 |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통신분야 7대 이슈 |
| 출처(URL) | http://www.fiercewireless.com/wireless/president-trump-s-top-7-action-items-telecom |

【 개 요 】

- o FireceWireless의 편집장 Mike Dano는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가 주목할 예정인 전기통신 분야의 7가지 주요 사안을 예측·분석함

【 주요내용 】

1. FCC 의장 선임 및 정책방향 결정

- o 첫째로 음성통화업무에서 유료 TV, 주파수 분배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FCC의 신규 의장 선출임
 - 오바마 행정부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던 Tom Wheeler는 지난 12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사임할 것을 발표함
- o 업계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두명의 공화당 중에서 Ajit Pai가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으며, Broadcasting & Cable에 따르면 트럼프는 금주 Pai를 접견함
- o 그러나 Multichannel News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FCC의 역할과 통신산업에 FTC 등과의 업무 중복을 제거하여 간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2. 망 중립성 폐지

- o 전 FCC 위원장이었던 Tom Wheeler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인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 대한 망 중립성의 실현이었으나, 트럼프의 FCC 전환 팀 5명 가운데 3명(Jeff Eisenach, Mark Jamison and Roslyn Layton)은 망 중립성 지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짐
 - 트럼프는 망 중립성과 같은 규제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됨

3. AT&T가 제안한 Time Warner 합병 법안

- o 트럼프는 지난 10월 공약 연설에서 AT&T의 Time Warner 합병의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광범위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54억 달러 규모의 AT&T와 Time Warner의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함
 - AT&T의 CEO Randall Stephenson은 트럼프와 회동했으나 AT&T는 Time Warner 합병에 대한 계약을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힘

4. Sprint와 T-Mobile 등의 향후 계약에 대한 방향

- o AT&T의 Time Warner 인수는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불분명함
 - 오바마 행정부는 2년 전 Sprint의 모기업인 SoftBank에 대한 T-Mobile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어 Sprint와 T-Mobile의 합병은 여러 차례 불어짐

5.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 종료 및 종합 주파수 정책 발표

- 전 FCC 위원장이었던 Tom Wheeler의 업적으로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가 있는데,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Mutichannel News에 따르면 트럼프의 FCC 전환 팀은 3월 이내에 경매 종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그 외, 5G 망을 고려한 초고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넓히기 위한 'Spectrum Frontiers'와 같은 노력을 포함한 주파수 확보 절차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됨
- 무선 업계가 크게 반대하고 있는 3.5GHz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 대역 및 5.9GHz 대역의 주파수 공유 또한 직면한 문제로 논의됨
- 오바마 행정부는 NTIA를 통해 2010년 대통령 기록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이동 및 고정업무에 대해 500MHz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중요성과 상업적 용도로 많은 주파수 요구에 따른 추가 주파수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추가 확보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함

6. 유료TV 시장의 'Unlock the box' 해결

- Tom Wheeler의 'Unlock the box' 운동은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통일하거나 고객들이 가지는 셋톱박스에 방송사업자의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셋톱의 규격을 오픈하는 제도로 TV 애청자에게 보다 많은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임
- 케이블 업계와 관련 지지자들은 이를 비난하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부담스러운 규제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겨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공화당은 지적하였음
- 트럼프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공화당 주도의 FCC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됨

7. 통신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의 주요 목표로서, 지난 12월 Sprint의 모기업인 SoftBank는 5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밝힘
- 아울러 SoftBank의 노력으로 Sprint는 미국에 5,000개의 직책을 추가할 것으로 보증함
- 트럼프는 또한 OneWeb이 추가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신생기업인 OneWeb은 최근 SoftBank와 12억 달러의 기금모금 활동을 마침

[↑ 목차로 이동](#)